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플레 감축법(IRA)'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 이래 가장 많다
- Bloomberg: 연준, 충돌없이 금융버블 줄이는 중

[미국 금융]

- WSJ: 저축자들, 저리 저축 5개 대형 은행 버리지 않는다

[부동산]

- CNBC: “맨해튼 월 평균 임대료가 5천2백불 하네”

[에너지/오일]

- WSJ: 미 휘발유가 작년 평균 이하로 하락
- CNBC: 바이든, 새 연방 건물에 온실가스 배출 제한 요구

[글로벌 무역]

- WSJ: 한국정부, 트럭 기사에 업무 복귀 명령 내려
- WSJ: 미국과 유럽, 중국 대항 반도체와 EV 대타협 필요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자동차 딜러들, 수요 감소에 대비한다...고금리와 경제 불안 전망 탓
- WSJ: 정리하고 단행하는 기업들, 해고시 ‘연공서열’ 원칙 바꾼다

[보고서]

- JP 모건 보고서: ESG Videos in the USA: The Disunited States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Continuing US Jobless Claims Rise to Highest Since February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 이래 가장 많다

- 이같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시장이 일시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실직자의 재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월 3일 끝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4천건 늘어난 23만건으로 나타났다. 총 청구건수는 6만2천건 늘어난 1백70만건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he Federal Reserve Is Deflating Financial Bubbles, Without a Crash

연준, 충돌없이 금융버블 줄이는 중

- 연준이 지금까지는 치솟고 있는 고물가 관리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 긴축 정책은 팬데믹 중에 커진 자산 버블 축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당초 3조달러였던 가상화폐시장은 3분 2 이상 줄었다.
- 투자들이 선호하는 기술주가 50%이상 내려 앉았다.
- 주택 가격 열기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중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The \$42 Billion Question: Why Aren't Americans Ditching Big Banks?

저축자들, 저리 저축 5개 대형 은행 버리지 않는다

- 대형 은행들이 저축 예금자에게 제공하는 이자율이 낮지만 고객들은 고수익 대체 계좌로 돈을 옮기지 않고 있다.
- 현재 미국인들은 대형 은행 저축에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미국인 저축자들이 5개 대형은행에 저축한 금액을 빼서 고수익 저축계좌로 옮겼을 경우 4백20억달러의 이자를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 Bank of America Corp., Citigroup Inc., JPMorgan Chase & Co., U.S. Bancorp, Wells Fargo 은행이 올해 3분기에 저축과 머니마켓 계좌 저축에 평균 0.4% 이자율을 지불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5개 고수익 저축계좌 이자율은 평균 2.14%를 지불했다.

WSJ 기사

[부동산]

CNBC: Manhattan renters face sticker shock with average rent at \$5,200 “맨해튼 월 평균 임대료가 5천2백불 하네”

-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맨해튼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10월에 \$3,964에서 \$4,033를 뛰어 넘었다.
- 호화 아파트의 경우 작년보다 19% 올라 11월에 평균 \$5,249를 기록했다.

- 인플레이션에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뉴욕이 전국 임대 시장중에 가장 큰 상황에서 뉴욕 임대료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CNBC 기사

[에너지/오일]

WSJ: Gas Prices Fall Below Last Year's Average**미 휘발유가 작년 평균 이하로 하락**

- GasBuddy에 따르면 미국 무역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3.32달러로 지난해 평균 3.36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올해 초 최고치인 5달러보다 약 35% 하락한 것.
- 국제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했지만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수요에 타격을 주며 다시 떨어진 것이다.
- 미국 원유의 선물 계약은 이번 주 수요일 3% 하락한 배럴당 72.01달러에 거래되었고, Brent crude는 2.8% 하락한 77.17달러를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경유 가격 또한 며칠 안에 갤런당 5달러 이하로, 몇 달 안에 4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CNBC: Biden to require new federal buildings to slash greenhouse gas emissions**바이든, 새 연방 건물에 온실가스 배출 제한 요구**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수요일 연방 기관들이 10년 후까지 건물 공간의 30%정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전기를 자체 공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건물 성능 표준을 공개했다.
- 연방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주상복합건물의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연방정부 건물에서 난방, 요리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연방정부 전체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 미 정부는 이 조치 이후 매년 8백만 달러를 절감하고, 향후 30년간 정부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1백86만 메트릭 톤(metric tons), 메탄 배출량을 2만2천8백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0만 가구의 1년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
- 한편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미 정부가 2050년까지 경제를 탈 탄소화 하고 2035년까지 100% 클린 에너지 전력망을 달성하겠다는 바이든의 계획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글로벌 무역]**WSJ: South Korea Orders Truckers Back to Work as Labor Tensions Rise Globally****한국정부, 트럭 기사에 업무 복귀 명령 내려**

-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각국 정부가 인플레로 인한 노동 소요사태 증가에 따른 경제와 공급망 타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이번 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 명령 대상자들 넓혀 지난주 시멘트 사업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트럭운전자로 확대했다.

WSJ 기사

WSJ: U.S., Europe Need a Grand Bargain on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to Counter China**미국과 유럽, 중국 대항 반도체와 EV 대타협 필요**

- 요약: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 관련해 자신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제한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 배경은 이렇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혼자 대응하지 않는데에도 동의한 이유는 어떤 국가가 전체 공급망을 유지할 정도의 파워는 없다. 그래서 “friend-shoring”, “like-minded partners.”이란 말이 나온다.
- 한마디로 서로간에 EV 보조금을 받고, 반도체 통제에도 동참하는 일이다. 불가능하지는 않고 상호간에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Auto Dealers Gird for Softening Demand Amid Higher Rates, Uncertain Outlook****자동차 딜러들, 수요 감소에 대비한다...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 탓**

- 지난 2년 간의 자동차 재고 위기가 완화되고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딜러들은 수요 감소 징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망은 5년 만에 가장 약세이다.

- 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며 신차 수요가 줄어든 가능성이 커졌다. Manheim에 따르면 11월 중고차 도매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했다.
- 11월 평균 신차 가격은 4만 5천 8백 72달러로 이달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7월의 최고치보다 겨우 몇 백 달러 정도 떨어졌다. 차량 공급이 아직은 부족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WSJ: When Companies Do Layoffs, Is It Really ‘Last In, First Out?’ 정리하고 단행하는 기업들, 해고시 ‘연공서열’ 원칙 바꾼다

- 전반적인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테크와 미디어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올 가을 해고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그같은 업종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업들은 오랫동안 연공서열 원칙을 감원에 적용해왔다. 신입사원부터 해고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더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기업들이 “후입선출” 대신 직원의 다양성과 인재 확보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 무분별한 후입선출 해고는 법적 조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경기가 회복된 후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성과가 좋지 않은 장기 근로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WSJ 기사

[보고서]

JP 모건 자료: ESG Videos in the USA: The Disunited States

Related research notes and suggested readings:

Report: [J.P. Morgan Perspectives: ESG in the USA: The Disunited States](#), 22 November 2022

Video: [J.P. Morgan Perspectives: ESG in the USA: The States Demand a Say](#), 6 December 2022

Presentation: [J.P. Morgan Perspectives Presentation: ESG in the USA: The States Demand a Say](#), 5 December 2022

원문 듣기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내년 세계 성장률, 금융위기·팬데믹 버금가는 부진 전망

내년도 각국이 경기후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성장 추정치인 3.2%보다 낮으며, 세계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1993년 이후 최저치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